

<다큐 3일>방송 내용 관련 한화 호텔엔드리조트의 답변에 관한 의견서

7월 20일 KBS2 <다큐 3일>의 방송 내용 해명 요청에 대해 7월 24일 답변 자료를 제출받았고, 이에 대한 의견과 요구 사항을 밝힙니다.

1. 벨루가 수입 시설과 구조 여부에 대한 인터뷰 내용 정정 요구

한화 호텔엔드리조트 홍보팀에서는 답변 자료를 통해 'TINRO연구소는 연구목적으로 고래류를 포획할 수 있는 기관이며, 해당 동물은 연구 목적으로 승인을 받아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에서 수입한 개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방송에서 묘사된 대로 TINRO가 '고아가 된 벨루가들을 모아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님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인터뷰 내용의 근거에 대해 '벨루가 반입 당시 동행했던 직원들이 틴로연구소 내에 상처를 입은 벨루가를 목격하였고 왜 다쳤냐고 물었을 때 '다쳐서 치료 중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일반적으로 벨루가들이 자연상태에서 상처가 발생하는 경우는 포식자의 공격에 의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음. 그리고 그 당시 갓 태어나 어미를 잃은 새끼 물범이 구조 되어 틴로연구소에서 인공 포육하고 있었음. 이를 통해 동행했던 직원들은 틴로연구소에서 구조활동 및 치료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지하였고 이러한 인지사실을 바탕으로 인터뷰가 이루어졌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곧, 직원이 현재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에서 사육 중인 동물이 아닌 다른 개체에 대해, '부상당하는 경우는 대개 포식자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본인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포식자의 공격 때문에 부상당한 동물이며, 치료를 목적으로 구조되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했으며, 이와는 또 다른 개체인 물범이 어미를 잃어 구조되어 포육되고 있던 상황과 연관시켜 'TINRO는 고아가 된 동물들을 모아놓고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유추해 사실과는 전혀 다른 정보를 공영방송에서 발설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에서 전시 중인 벨루가들은 연구 목적으로 어린 나이에 야생에서 포획된 개체들이고,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시설에서 목격한 다른 개체의 경우를 근거로 수입 시설을 '고아원'으로 미화한 것은 다분히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나, 한화 호텔엔드리조트의 해명대로 직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한 내용으로 사실과는 다른 정보를 공영방송에서 발언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명과 정정보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물자유연대는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 공식 홈페이지 내에 오늘부터 36시간 동안 팝업 공지를 통해 7월 20일 <다큐3일> 방영분에서 당사가 인터뷰 한 내용 중 '사육중인 벨루가가 무리에서 떨어져 고아가 된 동물들을 모아놓고 관리하는 시설에서 들어왔다'고 발설했던 내용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2. 구조대상 상어에 대한 자료 요청

답변 자료에 의하면, 구조치료대상인 상어는 외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의견서에서 재차 지적한 것과 같이,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에의 푸른바다거북도 외상을 이유로 구조되어 2년째 전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해당 생물의 상태를 봐야 하나, 야생생물의 외상치료에는 일반적으로 드는 치료기간이 있으며, 치료기간이 2년이 넘는 사례는 극히 일부'입니다. '바다로 다시 보내져도 다른 포식자에 의해 죽게 된다'는 판단은 전문 수의사의 소견인지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의 구조대상해양생물과 아쿠아플라넷 제주의 푸른바다거북에 대해 수의사가 판단하는 치료 상태와 방류가능 유무를 공개하고, 방류가 가능할 경우 지체없이 서식지로 방류할 것을 요구합니다.

3. 그 외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서 시민단체에서 회원들과 시민들을 대신해 공적으로 보낸 질의서에 대해 선별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만일 질의 내용에 대해 답변하지 않는 근거가 있다면 그 사유를 답변 자료에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고 사료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의견서에 명시된 '3. 기타 부적절한 관리방법 시정과 발언 내용 해명'에 대한 추가 답변을 요청합니다.

2014년 7월 25일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